

유아의 기질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자기 분화의 조절 효과*

김 세 리¹⁾

인하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전공

이 완 정²⁾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 관계에서 어머니 자기 분화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편의표집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59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배경 변인을 통제한 후 유아의 기질적 특성, 즉 외향성,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의 기질 변인 중 의도적 통제와 어머니의 자기 분화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 분화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더라도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 경우, 자녀의 기질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 분화 등 정서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성장하면서 부모로서의 역량 증진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기질, 어머니의 애착, 자기 분화, 조절 효과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인하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전공, 석사과정

2)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E-mail: wanlee@in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애착은 영유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된 심리적 유대감으로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까지도 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Groh et al., 2017)고 알려져 왔다. Bowlby와 후기 Bowlby 학자들이 애착을 어머니에 대하여 형성한 자녀의 애착, 즉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영유아의 내적인 조절체계로 제한하였다면, Ainsworth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양육자의 민감성으로 개념화시킨 의의가 있다. 이때 양육자의 민감성은 자녀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사려깊은 해석과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이후 애착은 사회적 유대(bonding)을 의미하는 쌍방향의 것으로,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형성한 애착 체계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형성한 심리적 결속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이론적 토대가 완성되었다.

즉, 애착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형성한 자녀 애착은 도외한 채, 영유아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형성한 어머니 애착으로만 연구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은 애착을 쌍방의 유대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 민감성이나 반응성과 같은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연구

들(김부경, 성미혜, 2020; Fuller, 1990; Mercer, Ferketich, May, DiJoseph, & Solid, 1988)이 부모는 심지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George와 Solomon(1999)에 따르면, 영유아가 양육자에게 형성한 애착 체계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형성한 양육 체계는 영유아를 보호하려는 적응적 기능을 가진다. 애착과 보호적인 양육이 통합된 하위 체계들이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스스로 조절해나가는 한 쌍의 상호 체계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형성하는 애착 외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형성하는 애착이 자녀나 어머니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현주(2005)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문화에 근거를 두고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에 대해 형성한 애착을 측정하는 한국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애착의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정서, 접촉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추구(분리불안), 보호, 결속(일치성), 냉담, 기대감을 도출하였다. 이는 김성애(2008), 장효은(2015)의 연구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형성한 애착 특성을 살펴보는 데도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령, 장효은의 연구(2015)에서 순한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정서, 접촉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결속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순한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에

게 갖는 냉담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개인적 특성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와 자녀 간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Goldsmith 등(1987)이 ‘기질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저널 특집에서 Thomas와 Chess의 접근, Buss와 Plomin의 접근, Rothbart의 접근, 그리고 Goldsmith의 접근 등 네 가지 이론적 접근을 통합하여 정리한 바에 따르면, 기질은 개인의 타고난 기본 성향으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출생 후 경험과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Goldsmith et al., 1987). 이후 기질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기질에 대한 정의는 다소 변화되었다. 2012년에 ‘다시 기질은 무엇인가? 1987년 Goldsmith 등의 논의 이후 진전사항’이라는 저널 특집에서 Shiner 등(2012)이 25년간 네 가지 이론적 접근에서 진전시킨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다시 종합적으로 정의한 것에 의하면, 기질은 비교적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기본 성향으로 활동성, 정서성, 주의, 그리고 자기조절의 영역을 가지며 이 성향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이 시간을 거치면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만들어 낸 산물이다(Shiner et al., 2012). 즉, 과거에는 기질을 개인의 타고난 비교적 안정된 성향이라고 보았다면, 근래에는 기질이 타고난 기본 성향이지만 이는 이후의 상호작용과 경험에 의해 바뀌는 속성도 있다고 보게 된 것이다.

특히 Rothbart는 기질의 이론적 토대를 한층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그는 기질을 반응성과 자기 조절에 있어서의 타고난 차이

라고 보고 기질에 조절의 특성을 포함시켰다(Rothbart, 1981). 또한, 기질이 유전과 성숙, 그리고 경험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Rothbart & Derryberry, 1981)이라고 보아 기질의 변화되는 속성을 구체화시켰다. Rothbart와 동료들은 기존의 기질 측정 도구와 달리,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영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달의 연속성 속에서 기질을 측정하는 일련의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 외향성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된다(Putnam, Rothbart, & Gartstein, 2004). 부정적 정서는 슬픔, 공포, 분노와 좌절, 불안, 반응 회복률과 진정성으로 구성되며, 의도적 통제는 억제 조절, 주의 통제, 낮은 자극 선호성, 지각 민감성으로 구성된다. 외향성은 접근성, 강한 자극 선호성, 미소와 웃음, 활동 수준, 충동성, 수줍음으로 구성된다.

기질 연구 분야에서 Rothbart의 기여를 기려 기획된 2008년 저널 특집에서 Putnam과 Stifter(2008)는 Rothbart와 그 동료들이 일련의 연구를 통해 기질 이론에 사회화의 개념을 포함시켰으로써 기질의 발달적 속성을 강조해왔다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즉, Rothbart는 기질이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열린 체계(open system)라고 이론화시켰으로써 영유아와 양육환경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a balanced perspective)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각의 핵심은 개별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서로 다른 양육자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일한 양육환경이 서로 다른 반응성과 자기 조절 특성을 가진 두 아동의 경험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걸음마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유주연의 연구(2020)에서 영아의 기질은 이들이 어머니와 교사에게 형성하는 애착안정성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기질 특성 중 외향성은 영아가 어머니에게 형성하는 애착안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영아가 교사에게 형성하는 애착안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외향성이 어머니와의 일대일 상호작용과는 달리 다수의 영아와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어린이집 환경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특성으로 발휘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활동적이며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에 관심과 접근을 좋아하는 영아의 외향적 성향이 어린이집이라는 공간과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반응 및 상호작용에 따라 어머니나 교사가 영아에게 형성하는 애착이 어머니나 교사의 개인 특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Rothbart는 이런 견지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발달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Rothbart & Derryberry, 1981). 기질과 사회화에 대한 Rothbart의 일련의 연구(Rothbart & Bates, 1998, 2006; Rothbart & Putnam, 2002; Sanson & Rothbart, 1995)에서는 자녀의 반응성에 대한 부모의 해석과 반응을 포함하는 긍정적 양육 행동이 부정적 정서성이 강하거나 혹은 의도적 통제 수준이 매우 낮아서 발달적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영유아의 적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다고 밝혀졌다.

결국,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자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외향성이나 의도적 통제, 혹은 부정적 정서를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 이 과정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Bowen의 자기 분화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성숙과 관계가 있으며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자기 분화는 태어난 원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err & Bowen, 1988).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타인의 기대에 무조건 순응하기보다는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은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반응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확고하지 않아 타인과 융해, 즉 타인과 지나치게 연합되어 있거나 스스로를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킨다.

성인의 자기 분화 수준은 부부 관계(김난진, 김영희, 2010; 김순기, 2001)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윤숙희, 2017; 조성희, 2011), 자녀에 대한 애착(채진영, 정혜정, 2015)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채진영과 정혜정의 연구(2015)에서 임신 후기 임신부의 자아 분화 수준은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부가 친밀한 관계 맺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타인이나 외부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개인의 자존감이 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록 이들의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는 높았다. 배우자의 경우, 자아 분화의 정서적 반응 수준이 태아 애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이나 외부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태아에 대한 애착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진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외향성 등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녀와 사려 깊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자녀 애착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진 어머니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아 환경 적응에 취약한 자녀에게 보다 성숙하게 대응해줌으로써 자녀의 기질이 작동하는 부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자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성희와 박찬옥의 탐색 연구(2012)에서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은 양육 상황에서 감정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개별성과 연합성 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해서 대세에 따른 양육을 하며, 이러한 결과 자녀 양육에 자신에 대한 인정 욕구가 개입되어 자녀를 도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낮은 수준의 자기 분화를 가진 어머니는 미성숙한 자아로 인한 불안을 양육을 통해 자녀에게 전이

시키고 이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통제와 과보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 분화는 그 자체로서 어머니의 자녀 애착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기질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 연관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유아의 기질이 자녀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이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발휘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Putnama, Rothbart, & Gartstein, 2008; Sanson & Rothbart, 1995)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자기 분화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수준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자녀 애착에 미치는 기질의 영향 요인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자기 분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유아의 기질의 영향은 어머니의 자기 분화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2-1.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의 주 효과는 유의미한가?

연구문제 2-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기질의 하위변인 중 의도적 통제의 경우 4세 경에 이르러 안정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유애형, 조은진, 신나리, 2022).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8개 어린이집을 편의 표집하여 유아반 어머니에게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하고 총 259명을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어머니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45.6%)보다 여아(54.4%)가 약간 많았다. 유아의 연령은 만3세(44.8%), 만4세(36.7%), 만 5세(18.5%) 순이었다. 유아의 출생순위에서는 외동(37.8%)의 비율이 높았고, 둘째(27.4%), 첫째(24.7%)는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51.4%)로 비율이 과반을 넘겼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39.0%)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비취업(39.4%)보다 취업(59.4%)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Rothbart (1996)가 개발한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Short Form(CBQ)를 김정민(2013)이 축약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외향성(12문항), 부정적 정서(12문항), 의도적 통제(12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어머니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외향성은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내는 편이다', '저녁때까지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친다'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정서는 '어떤 과제를 해내지 못했을 때 우울해하는 편이다', '화가 나면 달래기 매우 힘들다' 등이 있다. 의도적 통제는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획해서 준비한다', '뭔가를 쌓거나 만들 때 하는 일에 매우 집중해서 긴 시간 동안 작업한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외향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활동 수준과 외부자극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적 정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하며, 의도적 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집중과 통제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질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외향성 .68, 부정적 정서 .70, 의도적 통제 .75였다.

어머니의 자기 분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 분화를 측정

표 1.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 = 259)

구분		N(%)
유아	성별	남아 118(45.6)
		여아 141(54.4)
	연령	만3세 116(44.8)
		만4세 95(36.7)
		만5세 48(18.5)
	출생순위	외동 98(37.8)
		첫째 64(24.7)
		둘째 71(27.4)
		셋째 이상 26(10.1)
어머니	연령	20~29세 11(4.2)
		30~39세 133(51.4)
		40~49세 108(41.7)
		50세 이상 4(1.5)
		무응답 3(1.2)
	학력	고등학교 졸업 77(30.3)
		전문대학교 졸업 62(24.4)
		대학교 졸업 101(39.0)
		대학원 졸업 16(6.3)
		무응답 3(1.2)
	직업	프리랜서 13(5.1)
		상업, 서비스업, 자영업, 숙련기술직 30(11.7)
		일반사무직 45(17.6)
		교육직 39(15.2)
		관리직 5(2.0)
		전문직 10(3.9)
		무직 104(39.4)
		기타 10(3.9)
		무응답 3(1.2)

하기 위하여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Bowen의 자기 분화는 개인이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정서적 성숙을 포함하여 자신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를 구분하는 능력을 말한다(Kerr & Bowen, 1988). Kear(1978), Garfinkle(1980), Titelman(1978)가 개발한 척도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제작한 도구를 제석봉(1989)이 번안한 자기 분화척도 36문항 중 정서적 단절에 관련된 6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단절은 자아를 분화시키지 않은 채 정서적 거리를 두려는 것이며, 자신과 부모의 과거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가족퇴행의 부정적 현상과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7문항), 자아통합(6문항), 가족투사(6문항), 가족퇴행(11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고,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범위로 평정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한 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준 편이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자기 분화 수준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분화가 잘 되는 긍정적인 의미를 뜻한다. 즉,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정서 기능이 잘 분화되며, 자아의 통합수준이 높고, 가족투사, 가족퇴행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자기 분화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 .79, 자아통합 .56, 가족투사과정 .86, 가족퇴행 .91이

며, 총점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황현주(2006)가 개발한 부모-영아 애착 척도를 김성애(2008)가 유아용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한 장효은의 도구(2015)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긍정적 정서(11문항), 접촉 추구(7문항), 자기희생적 온정(9문항), 근접 추구(4문항), 보호(5문항), 결속(5문항), 냉담(4문항), 기대감(3문항) 등 총 8가지 요인 48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의 예를 보면 ‘내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등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애착 척도의 총점 범위는 48-192점을 이룬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의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긍정적, 안정적인 애착이라는 것을 뜻하지만, 냉담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에 대해 느끼는 어머니의 애착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채점하여 총점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긍정적 정서 .92, 접촉추구 .91, 자기희생적 온정 .81, 근접 추구 .84, 보호 .81, 결속 .82, 냉담 .62, 기대감 .78이었으며, 애착 도구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96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도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통계로 제시하였다. 둘째, 각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와 어머니의 연령을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아의 기질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자기 분화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역시 유아와 어머니의 연령을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은 결과의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해 평균중심화(Aikin & West, 1991)하였으며, 예측변수와 조절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고, 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자기 분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 상관관계

먼저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았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유아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 외향성, 의도적 통제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으며, 의도적 통제의 점수 분포는 2점에서 4점까지로, 외향성이나 부정적 정서에 비해 분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기 분화는 평균 2.75점(표준편차 .21)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의 분포를 보면 자아통합(평균 2.52, 표준편차 .35)은 낮은데 비해, 가족투사(평균 3.19, 표준편차 .54)이나 가족퇴행(평균 3.04, 표준편차 .54)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평균 3.39점(표준편차 .37)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하위변인의 분포를 보면 긍정적 정서(평균 3.62, 표준편차 .37), 접촉 추구(평균 3.57, 표준편차 .40)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 냉담(평균 1.73, 표준편차 .49)의 수준은 낮은 것을 보여준다. 한편, 주요 변인의 왜도는 3보다 작으며, 첨도는 8보다 작아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수준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17, p < .01$). 그리고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35, p < .01$). 또한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역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31, p < .01$). 즉, 유아의 기질적 특성, 어머니의 연령과 자기 분화 수준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성

(N = 259)

주요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외향성	2.55	.36	1.50	3.67	-.09	.43	
유아의 기질	부정적 정서	2.43	.39	1.33	3.67	.17	.38
	의도적 통제	3.04	.35	2.00	4.00	.05	.05
어머니의 자기분화	2.75	.21	1.80	3.33	-.37	1.78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	3.09	.44	1.71	4.00	-.12	-.21	
자아통합	2.52	.35	1.17	4.00	.27	2.03	
가족 투사*	3.19	.54	1.67	4.00	-.25	-.42	
가족 퇴행*	3.04	.54	1.00	4.00	-.60	.94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3.39	.37	2.40	4.00	-.35	-.82	
긍정적 정서	3.62	.40	2.27	4.00	-.92	-.26	
접촉 추구	3.57	.45	2.29	4.00	-.69	-.79	
자기희생적 온정	3.26	.42	2.13	4.00	-.14	-.68	
근접 추구	3.28	.54	2.00	4.00	-.18	-.84	
보호	3.18	.49	2.00	4.00	.02	-.64	
결속	3.34	.47	2.20	4.00	.05	-1.15	
냉담*	1.73	.49	1.00	3.00	.14	-.73	
기대감	3.25	.58	1.00	4.00	-.90	1.57	

주. *표시는 역순일 경우 자기 분화나 애착의 수준을 높이므로 총 평균 산출 시에는 역순으로 계산됨.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 = 259)

	1	2	3	4	5	6	7
1. 유아의 연령	1						
2. 어머니의 연령	.11	1					
3. 외향성	.01	-.14*	1				
유아의 기질 4. 부정적 정서	-.06	-.04	.29**	1			
5. 의도적 통제	.04	-.09	.01	.05	1		
6. 어머니의 자기분화	-.02	-.04	-.08	-.15*	.29**	1	
7.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01	-.17**	-.03	-.01	.35**	.31**	1

* $p < .05$. ** $p < .01$.

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의 주 효과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분석한 결과,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9.60, p < .001$). 통제변수와 유아 기질의 외향성,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 및 어머니의 자기 분화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8%였다($R^2 = .19, \text{adj.}R^2 = .17$). 회귀모형은 1단계($F = 4.01, p < .05$)와 2단계($F = 9.60, p < .001$)에

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가 3.1% ($R^2 = .03, \text{adj.}R^2 = .02$)로 나타났으며, 2단계는 18.8%로 나타났다($R^2 = .19, \text{adj.}R^2 = .17$).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독립변수의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1.01 ~ 1.13).

변수의 구체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 p < .05$).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 중 어머니의 연령만 자녀에 대한 어머니

표 4. 유아의 기질 하위변인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N = 259$)

변수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상수)	3.62		34.88***	3.59		37.15***
유아 연령	.02	.03	.53	.01	.02	.36
어머니 연령	-.11	-.18	-2.82*	-.09	-.14	-2.45*
외향성				.02	.02	.28
부정적 정서				-.03	-.03	-.49
의도적 통제				.28	.27	4.53***
자기분화				.39	.22	3.60***
F		4.01*			9.60***	
R^2		.03			.19	
adj. R^2		.02			.17	
$\Delta R^2(\Delta F)$		.03(4.01*)			.16(12.04***)	

* $p < .05$. ** $p < .01$. *** $p < .001$.

애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 p < .05$),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beta = .27, p < .001$)는 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자기 분화($\beta = .22, p < .001$)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중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beta = .27, p < .001$), 그 다음이 어머니의 자기 분화($\beta = .22, p < .001$), 어머니의 연령($\beta = -.14, p < .05$) 순으로 영향력이 크기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자녀에 대한 애착 간 관계에서 어머니 자기 분화의 조절 효과

유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 자기 분화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 분화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 = 4.01, p < .05$)와 2단계($F = 14.40, p < .001$), 그리고 3단계($F = 12.44,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가 3.1%($R^2 = .03, \text{adj.}R^2 = .02$), 2단계는 18.7%($R^2 = .19, \text{adj.}R^2 = .17$), 3단계는 19.9%($R^2 = .20, \text{adj.}R^2 = .18$)로 나

표 5. 유아의 기질 의도적 통제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기 분화 조절 효과
($N = 259$)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상수)		34.88***		37.43***		37.62***
유아 연령	.03	.53	.02	.37	.02	.31
어머니 연령	-1.8	-2.82*	-.14	-2.46*	-.13	-2.24*
의도적 통제(A)			.27	4.52***	.24	3.98***
자기분화(B)			.22	3.75***	.25	4.08***
A $\times$ B					-.117	-1.98*
F	4.01*		14.40***		12.44***	
R^2	.03		.19		.20	
adj. R^2	.02		.17		.18	
$\Delta R^2(\Delta F)$	.03(4.01*)		.16(24.05*)		.01(3.93*)	

* $p < .05$. ** $p < .01$. *** $p < .001$.

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독립변수의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하였으며, 독립변수의 공차값이 0.1를 넘었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산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단계별로 R^2 변화량이 조금씩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F 변화량에 대한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 < .05$)가 보여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와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 간에 관계에 있어 어머니 자기 분화의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절변수인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5, p < .001$), 독립변수인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beta = .24, p < .001$)와 상호작용항인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 $\times$ (어머니의 자기 분화) B ($\beta = -.12, p < .05$) 또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사조절변수(Baron & Kenny, 1986)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절변수인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높을수록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모형 검증 후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와 어머니 자기 분화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저 집단과 고 집단으로 분류하여 그림 1과 같이 조절 그래프를 그렸다. 그림 1 그래프를 통해 조절 효과를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낮은 집단은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 수준이 낮고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 수준이 급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높은 집단 간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 중 의도적 통제 수준이 자녀에 대한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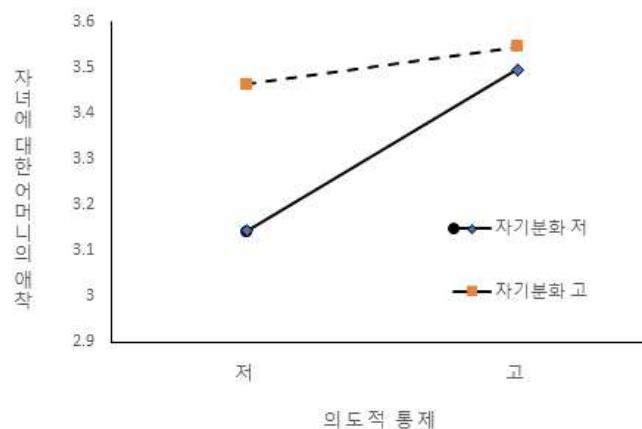


그림 1. 조절 효과 그래프

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유아의 기질과 자녀에 대한 애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자기 분화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자기 분화는 유아의 기질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 경향은 부정적 정서가 가장 낮고, 외향성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의도적 통제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설경옥의 연구(2017)나 이영미의 연구(2020)에서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기질 경향이나 유주연의 연구(2016)에서 영아반 교사가 보고한 영아의 기질 경향과도 일관된 것이다. 의도적 통제는 후기 아동기와 성인기의 실행기능에서의 자기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Rothbart & Posner, 2022)을 고려할 때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의도적 통제가 부정적 정서나 외향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유아 기질에서의 개인차(Putnam, Rothbart, & Gartstein, 2008)를 살펴볼 때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유아의 성향을 조절해주는 변인을 밝혀내는데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 분화 경향을 보면, 하위변인에서 자아통합은 상대적으로 낮고, 가족 투사나 가족 퇴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경옥의 연구(2005)에서 나타난 경향과 일관된 것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경향을 보면, 긍정적 정서나 접촉 추구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냉담 수준은 하위변인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던 장효은(2015)이나 김맹선(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표본은 관련 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특이점을 갖지 않은 일반적인 표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연령과 자기 분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 분화의 주 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어머니의 연령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애착 중 근접 추구 정도가 높게 나타난 이미진의 연구(2019)와는 일관된 것이나,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김맹선의 연구(2018), 강도희와 장경은의 연구(2021)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것이다. 연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연구마다 참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가

서로 다른 것일 수 있으나,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 경우 자녀에 대한 애착 형성에 보다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 변인 중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모-자녀 간 애착 간 관계를 밝혀 온 선행연구 결과들(김현주, 2019; 유효순, 2012; 전유진, 유미숙, 2020; 홍미림, 방희정, 이순행, 2007)을 지지한다. 기질에 대한 이론적 입장은 다양하지만, 그 배경이 어떠한 기질의 요인은 까다롭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부정적인 정서성향과 적응적이고, 리드미컬하고, 사회적인 긍정적 정서성향으로 구분된다는 점(Groh et al, 2017)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 민감성, 억제 조절, 주의 통제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 분화와 자녀에 대한 애착 간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임산부의 자기 분화와 태아에 대한 애착 간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김부경, 성미혜, 2020; 채진영, 정혜정, 2015)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 분화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성숙과 관계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Kerr & Bowen, 1988)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유아기 자녀

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 때 자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자녀의 특성과 무관하게 보다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질 변인 중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유아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유아의 기질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자기 분화와 같은 정서 심리적 특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자의 역할이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발달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Rothbart & Bates, 1998, 2006; Rothbart & Derryberry, 1981; Rothbart & Putnam, 2002; Sanson & Rothbart, 1995)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자극 선호성이 낮고, 지각 민감성이 낮으며, 주의하거나 억제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Rothbart & Bates, 1998, 2006; Rothbart & Putnam, 2002) 이러한 특성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형성하는 긍정적인 애착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기 분화는 타인이나 외부환경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개인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함으로써(Kerr & Bowen,

1988) 자녀가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아 지각 민감성이 부족하거나 주의 통제를 잘하지 못하는 부정적 성향의 특성을 나타낼 때 그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Chess와 Thomas(1984)가 ‘조화의 적합성 (goodness of fit)’ 개념을 통해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맞추어 양육환경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래, 양육자가 양육환경을 조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가정환경을 벗어나 학교 등을 가게 되면 환경을 조절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 특성이 중재 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기질의 특성 중 특히 자기 조절(self-regulation) 영역은 변화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Kochanska & Aksan, 2006)이 밝혀지면서 조화의 적합성 원리는 양육자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적 성향을 받아 들여주면서 보다 적합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경우 영유아는 성장하면서 자기 통제나 조절과 관련된 자신의 기질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학교 환경 등 주변 환경의 범위가 확대되어도 건강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다(Rothbart & Posner, 2022)는 이론적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서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아도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아 이를 중재할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기질과 애착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근래의 연구 동향(Groh, et al., 2017; Kochanska & Aksan, 2006; Rothbart & Posner, 2022)을 지지한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어머니의 자기 분화와 양육 경험을 탐구한 조성희와 박찬옥의 연구(2012)에서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친밀감을 보이며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력과 융통성을 갖고 자녀를 대하는 데 비해,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과보호와 통제 행동을 보인다고 밝힌 결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 양육자의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녀가 형성하는 심리적 유대감일 뿐이 아니라 자녀와 어머니 간 쌍방의 유대관계임(George & Solomon, 1999)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간 청소년이나 성인의 자아 분화가 가족체계 내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박경옥, 2005; 송광호, 전해성, 2019)은 다수 있었으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자녀에 대한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기질 특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중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양육과정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 분화를 촉진시켜 양육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이상미, 2019; 조성희, 박찬옥, 2012; 조형숙, 김명하, 2012)의 이론적 근거를 지지해준다.

즉,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 경우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서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아도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형성하는 애착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도 낮고,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서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을 경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을 경우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부모 자녀 관계에 미치는 부정 영향을 적절히 조절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조성희와 박찬옥(2012)의 제안과 일관된 주장으로 귀결된다.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워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기 쉬우며, 자녀를 또 다른 나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대로 간섭하고, 부모로서의 자신을 입증하거나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한다. 독립된 자아로서의 자신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이 자녀에게 투영되어 자녀의 앞날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자녀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에서는 단기간 교육으로 부모 역할의 기술과 기능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상태에 대한 성찰적인 질문과 논의를 통해 지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자기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기질과 애착 간 관계(장효은,

2015; 황현주, 2005; Groh et al., 2017), 어머니의 자기 분화와 양육 행동(윤숙희, 2017; 조성희, 2011; Putnama, Rothbart, & Gartstein, 2008), 어머니의 자기 분화와 자녀 애착(김부경, 성미혜, 2020; 채진영, 정혜정, 2020)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조절하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어머니의 정서 심리적 특성이 양육과정에 작동하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의 자기 분화 수준 등 어머니의 자아 상태, 심리적 특성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역량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도권에서 편의 표집하였으며, 변인을 어머니의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 애착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대해 어머니의 보고를 조사하는 것 외에,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하여 모 자녀 간 애착의 상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자기 분화와 양육 행동 및 애착 형성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자녀에 대한 애착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서로 다른 편이므로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시기 뿐 아니

라 어머니의 연령 특성과 이에 따른 양육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에 대해 변화의 속성이 있다고 알려진 자기 통제의 차원을 포함하여 조사해 본 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을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 점, 그리고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유아의 기질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 관계에 대해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 본 점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원 가정에서의 성장 경험, 자아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영유아의 부모가 자녀와 동반 성장하면서 부모역량을 꾸준히 증진시키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도희, 장경은 (2021). 어머니의 거부민감성이 어머니-자녀 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조절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3), 303-325.
<https://doi.org/10.22154/JCLE.22.3.12>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7(1), 209-224.
- 김남진, 김영희 (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197-225.
- 김맹선 (2018). 유아 어머니의 기질 및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자녀 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부경, 성미혜 (2020). 초임부의 자기분화, 심리적 불편감 및 부부적응이 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 *Korean J Women Health Nurs*, 26(4), 318-325.
<https://doi.org/10.4069/kjwhn.2020.11.12>
- 김성애 (2008).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시설유아와 일반유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 (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3). 실행기능과 기질이 유아의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2019). 어머니-걸음마기 자녀 간 갈등과 걸음마기 자녀의 기질 및 애착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9(5), 133-159.
<https://doi.org/10.18023/kjece.2019.39.5.006>
- 박경옥 (2005). 가족체계 안에서 자아분화와 애착이론과의 관계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경옥 (2017).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교사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광호, 전해성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 진로태도성숙,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가족과 가족치*

- 료, 27(3), 373-396.
- 유애형, 조은진, 신나리 (2022). 어머니의 기본 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자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9(1), 179-199.
<https://doi.org/10.15284/kjhd.2022.29.1.179>
- 유주연 (2016). 영아의 기질 및 영아-교사 관계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주연 (2020). 맞벌이 가정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 애착안정성 비교: 영아 기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1), 153-176.
<https://doi.org/10.22590/ecee.2020.24.1.153>
- 유효순 (2012). 어머니 자신의 애착표상, 양육 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 애착 간의 구조모형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6(3), 49-70.
- 윤숙희 (2017). 모(母)의 원가족 자기분화 경험 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진 (2019). 어머니 원 가족 부모애착이 어머니-유아 애착 및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2019). 자기분화의 촉진을 위한 상담 효과에 관한 연구-아동의 증상 완화 및 부모의 자기분화와 양육 태도의 변화에 대해.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미 (2020). 모(母)의 성격특성과 유아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지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효은 (2015). 부모의 자녀 애착과 정서지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기질에 따른 차이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유진, 유미숙 (2020). 유아기질 및 모애착과 유아 사회성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21-42.
<https://doi.org/10.36431/JPE.12.1.2>
- 채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희 (2011).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에 근거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 탐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희, 박찬옥 (2012).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에 근거한 어머니의 양육 경험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16(2), 139-166.
- 조형숙, 김명하 (2012).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른 자아상태 및 심리적 자세의 차이: 어머니의 자기분화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201-218.
- 채진영, 정혜정 (2015). 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아분화와 심리적 불편감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89-102.
<https://doi.org/10.7466/JKHMA.2015.33.2.89>
- 홍미림, 방희정, 이순행 (2007). 어머니-유아 문제해결 상호작용에서 유아 행동특성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23-145.
- 황현주 (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측정

-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현주, 정옥분 (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 *인간발달연구*, 13(4), 95-115.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pp. 42-90). New York: Gardner Press.
- Chess, S., & Thomas, R. (1984). *Origins and evolution of behavior disorders*. New York: Brunner/Mazel.
- Fuller, J. R. (1990). Early patterns of maternal attachment.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1(4), 433-446.
<https://doi.org/10.1080/07399339009515913>
- Garfinkel, H. N. (1980). *Family System personality profile: An assessment instrument based on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George, C., & Solomon, J. (1999). Attachment and caregiving: The caregiving behavioral system.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649-670). New York: Guilford Press.
- Goldsmith, H. H., Buss, A. H., Plomin, R., Rothbart, M. K., Thomas, A., Chess, S., ...McCall, R. B. (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2), 505-529.
<https://doi.org/10.2307/1130527>
- Groh, A. M., Narayan, A. J., Bakermans-Kranenburg, M. J., Roisman, G. I., Vaughn, B. E., Fearon, R. M. P., & van IJzendoorn, M. H. (2017). Attachment and temperament in the early life course: A meta-analytic review. *Child Development*, 88(3), 770-795.
<https://doi.org/10.1111/cdev.12677>
- Kear, J. (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https://doi.org/10.4324/9781315809717>
- Kochanska, G., & Aksan, N. (2006). Children's Conscience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87-1617.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6.00421.x>
- Mercer, R. T., Ferketich, S., DeJoseph, J., & Sollid, D. (1988). Further explor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fetal attach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1(2), 83-95.
<https://doi.org/10.1002/nur.4770110204>
- Putnam, S. P., Rothbart, M. K., & Gartstein, M. A. (2004). *Longitudinal examination of*

- finegrained aspects of temperament during infancy, toddlerhood, and early childhood* [Poster presentati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Chicago, IL, United States.
- Putnama, S. P., Rothbart, M. K., & Gartstein, M. A. (2008). Homotypic and heterotypic continuity of fine-grained temperament during infancy, toddlerhood, and early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4), 387- 405. <https://doi.org/10.1002/icd.582>
- Putnama, S. P., & Stifter, C. A. (2008). Reactivity and regulation: The impact of Mary Rothbart on the study of tempera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4), 311-320. <https://doi.org/10.1002/icd.583>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2), 569-578. <https://doi.org/10.2307/1129176>
- Rothbart, M. K. (1996).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187-247).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105-17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pp. 99-10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37-86). Hillsdale, NJ: Erlbaum.
- Rothbart, M. K., & Posner, M. I. (2022).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and the efficiency of brain networks.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43*, 242-248. <https://doi.org/10.1016/j.cobeha.2021.11.001>
- Rothbart, M. K., & Putnam, S. (2002). Temperament and socialization. In L. Pulkkinen & A. Caspi (Eds.), *Paths to successful development: Personality in the life course* (pp. 19-45).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son, A., & Rothbart, M. K. (1995).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 299-321). Hillsdale, NJ: Erlbaum.
- Shiner, R. L., Buss, K. A., McClowry, S. G., Putnam, S. P., Saudino, K. J., & Zentner, M. (2012). What is temperament now? Assessing progress in temperament research on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Goldsmith et al. (1987).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4), 436-444. <https://doi.org/10.1111/j.1750-8606.2012.00254.x>
- Tileman, P. (1978). Bowen's family system theory: Natural science or human science. In P. J. McCullough (Ed.), *Second pittsburg family systems symposium* (pp. 10-33). University of Pittsburg.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Inc.

1 차원고접수 : 2022.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8. 21.

최종게재결정 : 2022. 09. 27.

Th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on Maternal Attach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Kim, Se-Ri

Div. of Chil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Lee, Wan-Jeong

Dept. of Child Psychology,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maternal attachment. In this study, 259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5 were selected as study participants. After controlling for background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attachm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aternal attach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a higher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mong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and a higher mothers' self-differentiation resulted in a higher level of maternal attachment, and mothers' self-differentiation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aternal attachment. That is, even if the level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as low, the results showed that a higher mothers' self-differentiation tendency resulted in a higher positiv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on maternal attach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arenting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mothers' self-differentiation by simultaneously considering mothers'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adaptive contribution of the children's temperament development.

Keywords: temperament, maternal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moderating effect